이렇게 들었다

건강보험 재정파탄

‘참과 거짓 살피는 지혜”

▩ 왕은 다음의 세 가지 일로 나라를 망친다. 아첨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 성현에게 묻지 않고 충언을 듣지 않는 것. 즐겨 남의 나라를 치고 어진 백성을 양성하는 않는 것. (잡보장경)

▩모든 교활과 아첨 거짓과 사기나 훌림도 겉으로는 정직을 위장하였지만 속으로는 간사함을 품고 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참과 거짓을 냉철히 살필 수 있어야 한다. (잡보장경)

건강보험재정이 파산위기에 처해 있다고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그 원인은 부처님이 설하신 것처럼 어진 백성 즉 전문가를 두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비판 여론도 묵살했다는 점이 큰 원인이다. 정부는 비전문가 장관을 임명하고 당과 청와대 비서실의 “문제 없다”는 말만 듣고 의약분업을 강행한 것이 재정 파탄을 가속화시킨 것이다. 여기에 반대 여론과 비판에 귀를 막은 것도 한몫(?) 했다. 보건복지부의 한 고위 간부는 의료보험 통합에 대해 성공할 수 없다고 경고했으나 묵살됐고 결국 해직까지 됐다는 후문이다.

부처님께서 “만일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일을 함께 한다면 그 나라는 반드시 흥할 것이다”라고 설한 것처럼 여러 비판 여론을 겸허하게 수용해 전문가들의 철저한 보완작업을 거쳤다면 이 지경까지는 오지 않았으리라 판단된다. 결국 비판을 듣기 싫어하면 독선을 부르고 그것은 곧 파탄에 이른다는 진리를 보여준 셈이다.

건강(의료) 보험 파탄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목전에 두고 빚어지는 당(黨)·정(政)·청와대간의 책임 공방은 우려의 차원을 넘어 국민의 불안을 더욱 가중시켰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몇 차례나 ‘자신 있다’고 말해서 의약분업을 강행했다. 의약분업은 관료들의 책임이지 통치권 차원에서 결정할 일이 아니었다.” (청와대) “추진과정 전반에 청와대가 깊숙이 관여했다. 대선 공약 지키기 차원에서 정치권에서 결정한 일인데 복지부만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 (복지부)

이밖에도 ‘수습이 우선이다’ ‘인책을 병행해야 한다’ ‘모두 바꿔야 한다’ 등 서로간의 반목질시(反目嫉視)가 무성하게 쏟아져 나왔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논쟁의 무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하셨다. “자기들의 고집을 버리지 않고 스스로 남을 가르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더 깊은 반목과 논쟁으로 빠져든다”고.

실패한 의약분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필수다. 중요한 것은 똑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과감한 자기 혁신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부처님께서 무아와 연기사상을 여러 방편을 통해 수없이 강조한 것도 참나(眞我)를 향한 자기 혁신일 것이다. 한낱 자기의 인생관과 정치관 그리고 자존심의 부질없는 형상에 끄달려 편협함을 자초하는 이기를 주장하는 인간들에게 부처님의 이 같은 사상은 또 다른 인간의 세계를 깨닫게 해 줄 것이다.

김중근 기자(gamja@buddhapia.com)

대학교육 체계 흔드는 ‘고학력 실업’

불자 세상보기

송일호
동국대 교수
경제학

교수-학생간 불신 가중
국가적 인적자산 방치
다양한 해결책 필요

실업자가 IMF이후 다시 1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안타까운 것은 20년 가까이 정규교육을 끝내고 사회에 진출하고자 하는 대학졸업자들의 신규채용이 꽉 막혀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잘 관리해야 할 국가적 인적자산임을 감안할 때 과연 이대로 방치해도 되는가 하는 불안감이 앞선다.

현재의 실업은 경기적 실업 외에 격변하는 산업구조개편에 따른 구조적 실업이 겹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해결책이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졸 미취업자들은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여러 가지 대안을 고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그다지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대학원을 진학한다든지, 일부러 졸업을 늦추기 위해 어학연수를 다녀온다던가 하는 다소 여유있는 선택을 하는 반면에 정부지원 프로그램이나 취업박람회에 참여구직등록을 하고 인턴사원으로 취업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다.

이런 현상이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이라는 경제적 측면을 배제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교육은 사회의 구성을 원만히 하게 하고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고학력자가 취업을 못하게 된다면 사회구성원으로부터 교육에 대한 불신이 점차 확대될 것이고 이어 사회의 각 주체들 간의 신뢰는 무너지게 된다. 학생이 교수의 강의를 실용성 측면에서 저평가하고 자신의 전공에 대한 회의를 품는다면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신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공급자는 나름대로 교육수요자의 취향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교육이 안고 있는 특성상 그 한계가 있는 것이다. 대학이 모든 학생의 취업을 위해 커리큘럼을 그 쪽으로 바꾸고 교수는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 동서분주해야 한다면 대학의 학문적 위치와 교육 본연의 임무는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연구와 강의를 잘하는 교수 보다 취직을 잘시키는 교수가 학생들에게 더 존경받는 현실에 대해 허탈하고 안타까운 마음뿐이다.

현재 정부의 실업대책은 다양한 각도에서 고려되어 실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은 대부분 선진국의 정책을 답습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우리는 우리가 안고 있는 정서나 환경을 고려해야만 근본적으로 문제의 핵심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정규교육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으며 또한 장래를 보장하는 보험과 같다는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 도대체 어떤 나라에서 모든 사람이 대학 가길 원하고 이를 위해 부모가 그토록 희생하고 있는가? 출세를 하여 집안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을 교육에서 찾던 시절은 지나가고 있다. 또한 학맥이라는 연줄망을 통해 입신출세의 지름길로 가고자 하는 어설픈 바람도 없어져가고 있다. 그야말로 학문적 요구와 열망에 의해서만 대학교육의 수요가 발생하여야 제대로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정규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직업교육훈련과 같은 다양한 대안교육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대학교육을 통해서만 국가의 인적자원이 축적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용학문은 가능한 범위 안에서 대안교육으로 대처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가 이러한 대안교육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선행되어야만 실행가능한 시나리오가 될 것이다.

독자의 소리

독자여러분의 글·사진·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기념품을 우송해 드립니다. 보내실 때는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보낼 곳 : 우(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전화 : (02)722-4162 ·팩스 : (02)737-0698 ·천리안 : aeum ·하이텔 : 34713

바미안 대불 파괴라니 남의 종교도 소중한데

아프가니스탄의 바미안 대불이 파괴됐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안타까움과 착잡함을 지울 수가 없다. 다른 이유도 아니고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종교의 상징물을 무참히 파괴하는 일이 문명시대라는 오늘날에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다.

흔히들 종교에는 국경이 없다고들 한다. 그렇지만 세계여행을 다녀본 사람들은 종교만큼 국경이 뚜렷한 것도 없다고 말한다. 아직도 세계 도처에서는 종교문제로 갈등이 빚어지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그런 사례들이 종종 발생한다.

종교는 인간의 감정과 의지를 다스리는 신념체계이기 때문에 자기가 믿는 종교가 외부로부터 침해를 받으면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오늘날과 같은 다종교 사회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주는 공존의 원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내가 믿는 종교만이 참 진리라고 확신한 나머지 남의 종교를 폄하하거나 멸시한다면 공존의 원리가 깨지게 되고 걷잡을 수 없는 분쟁에 빠질 수밖에 없다. 내가 믿는 종교가 소중하면 남의 종교도 소중하다. 종교간의 우열을 논한다던가 내 종교만이 옳다는 식의 편협한 주장은 버려야 한다. 남의 종교를 존중하는 것은 곧 자신의 종교를 존중하는 것이다.

(정석준 · 경주불교청년회 지도법사)

성직자 본분 망각하면 결국 공든탑 무너져

나눔의 집 원장이었던 혜진스님이 여직원과의 관계로 물러난 것은 몹시 가슴아픈 일이다. 이유야 어찌됐든 일차적으로는 스님의 잘못이며, 또 스님이 올바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지 못한 불자들에게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요즘 세상은 갖가지 유혹이 많은 세상이다. 심지어는 혼돈스런 세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바른 길을 가며 살기란 여간 쉽지가 않다. 술, 노름, 마약, 이성, 돈, 명예, 출세 등 탐진치로 얽혀 있어 잠시라도 한 눈을 팔게 되면 평생 쌓아올린 공든 탑이 일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 혜진스님도 바로 그런 경우다.

우리는 혜진스님 문제를 혜진스님의 개인문제로만 치부하거나 말하기 좋은 이야기거리로만 여겨서는 안된다. 누구나 그런 잘못을 저지를 가능성은 항상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반듯하게 살아야 함은 비단 성직자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된다.

어떤 법회에서 한 스님이 행자들에게 “중은 하루에 한번씩 제 머리를 만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스스로의 본분을 늘 잊지 않으면서 자기 자신에게 충실해야 한다는 가르침으로 이해했다. 요즘 같은 세상엔 스님이든 불자든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김광조 · 충남 천안시 쌍용동)

물고기 방생 지양하고 자연 살리는 방생 찾자

방생문화가 바뀌고 있다는 기사를 접하면서 진작에 그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을 정도로 반가웠다.

정월보름이나 초파일을 앞두고는 어김없이 물고기 방생을 하는 것이 불교계의 관례다. 하지만 명목만 방생일 뿐이지 사실은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환경이나 생태학적인 측면을 무시함으로써 방생으로 풀어놓은 물고기들이 죽은 모습을 매스컴을 통해 자주 본다. 이럴 때마다 불자로서 안타까움에 앞서 부끄러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아직도 많은 사찰에서는 사회의 비판적 시각을 무시한 채 물고기 방생법회를 강행하고 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더이상 상식에 역행하는 이런 행위가 계속되어서는 안된다. 차라리 물고기를 방생하는 마음과 정성으로 불우한 이웃을 돌아본다면 몇 천배 뜻깊은 일일 것이다.

지금까지 자연은 인간에게 조건없이 모든 것을 베풀어왔다. 하지만 인간은 오히려 자연을 훼손하기만 했을 뿐이다. 자연에 대한 섣부른 간섭은 자연의 자생력을 약화시키고 질서를 파괴할 수도 있다. 물고기 방생은 분명히 자연생태계 파괴다. 이제는 이런 방생문화에서 벗어나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새로운 방생문화를 모색해야 할 때다.

(김갑숙 ·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기고

‘1인 시위’ 나서는 두 스님 모습서 불교의 미래 본다

이상효
실천승가회
사무차장

지난 8일 효림스님(실천불교전국승가회 부의장)이 미대사관 앞에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을 위한 한·미간의 재협상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인데 이어, 20일에는 수경스님이 서울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새만금 살리기를 위한 단독 시위를 벌였다.

이 두 건의 시위는 스님이 시위를 벌였다는 단편적 사실보다는, 양국간의 상호평등에 기초한 소파협정을 마련할 것과 환경을 파괴하는 새만금간척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불교계의 의지를 행동으로 보였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

사실 불교계가 그동안 타종교에 비해 사회참여가 소극적이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굳이 분야를 나눠서 말하자면 환경과 인권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운동에 대한 참여도는 과거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특히 민감한 한미관계에 대한 입장은 전무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불교의 사회 참여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노동, 인권, 환경, 마약,폭력과 같은 사회범죄 등 다양한 영역에서 그 참여와 폭을 넓히고 있다. 티베트불교를 비롯해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내에 일고 있는 참여불교는 그 좋은 예이며, 이들은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활발한 연대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스님의 사회참여를 수행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역사는 부조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사람들과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로 이어져왔다. 그 둘 모두 역사의 주인공인 것이다.

수행하는 스님도 있어야 하지만, 세상의 불평등과 불합리를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하는 스님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 두 스님의 모습에서 밝은 불교의 미래를 엿볼 수 있었다.

봉축위원회 공식지정

2545년 봉축 현수막

13도 칼라

불기 2545년 5월 1일(음. 사월초파일)
부처님오신날
관음사
■ 90cm×6m, 7m, 8m, 10m, 12m ※ 폭 105cm, 150cm 제작 가능 ※ 세로 현수막도 제작 가능

2545 Buddha's Birthday **우리도 부처님같이** 5월 1일 사월초파일 도선사
■ 90cm×6m, 7m, 8m, 10m, 12m ※ 폭 105cm, 150cm 제작가능

불기 2545년 5월 1일(음. 사월초파일)
마음청정 나라청정
대한불교조계종 보문사
■ 90cm×6m, 7m, 8m, 10m, 12m ※ 폭 105cm, 150cm 제작 가능 ✠ 각 지역 사암연합회 단위 단체주문 환영

연 등 축 제
■ 90cm×6m, 7m, 8m, 10m, 12m ※ 폭 105cm, 150cm 제작 가능 ✠ 불법제작 판매 불허

감로기획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조계사 옆) ☎ (02)723-4306 · 4307 · 4309 FAX.(02)738-8682

전국보급처 ■부산-고려불교예술원(051)807-6842 ·종합불교관(051)816-2926 ■대구-삼영불교서적(053)425-4097 ■광주-무등원(062)232-0904 ■인천-인천불교서적(032)763-7885 ■대전-보문불교서점(042)253-6446 ·용해불교(042)283-3727 ·중앙불교(042)222-7840 ■경북상주-고려문헌사(054)541-5599 ■구미-대중불교문화원(054)455-1068 ■충주-중원불교마당(043)851-8477 ■공주-시대불교사(041)856-3280 ■경기광주-광주만물(031)762-1083 ■의정부-삼보불교사(031)856-1020 ■경남밀양-밀양불교사(055)355-5742 외 전국유명불교용품점